원효대사

"〈別記〉, 中 법장 영향 받아 후대 재편집"

최연식 교수, 동국대 HK연구단 주최
원효 탄신 1400주년 국제학술대회서

현재 전해지는 원효의 저술인 〈대승기신론별기〉가 그의 가장 이른 시기 저술로 간주되는 〈기신론기〉를 토대로 후대에 재편집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사진)는 5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주최로 열린 '원효성사 탄신 14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 에서 '〈대승기신론별기〉 성립에 대한 새로운 이해' 라는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최 교수는 〈대승기신론소〉가 〈별기〉를 종합 정리한 것이라는 기존 해석과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별기〉가 〈소〉에 앞서 찬술한 것이 아니고, 〈기신론기〉를 모태로 하되 중국 법장의 〈의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따라서 원효의 〈소〉는 법장의 〈의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의기〉는 〈별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별기〉가 곧 '원효-법장' 융합형태의 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별기〉에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서술 양태를 꼽았다. 그는 "〈별기〉는 본문 전체를 고르게 설명하는 〈소〉와 달리 본문의 적지 않은 부분에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 특정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긴 분량의 설명을 제시하는 특이한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구체적 서술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서술 양태 등
원효 입적 후 재편집 가능성
원효-법장 융합형태 시발점"

도 전후맥락에 맞지 않는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원래의 문장에 후대에 새로운 내용이 맥락에 맞지 않게 추가 삽입되면서 전후맥락의 연결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원효 저술들의 체계적인 서술 모습을 볼 때 현재의 〈별



기〉는 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별기〉는 원효가 찬술할 당시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 혹은 삭제돼 재편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교수는 법장의 〈의기〉에 명시된 '별기' 는 법장 자신의 다른 저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의기〉에서 별기에 서술됐다' 는 원효의 〈별기〉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기〉의 (재)편찬자가 〈의기〉에서 '별기' 를 언급하는 문장에 주목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별기〉는 〈의기〉에서 언급한 '별기' 가 아님에도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별기〉가 후대에 재편집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별기〉는 언제 재편된 것일까? 최 교수는 원효가 입적한 687년 이후부터 동대사의 사경문서(寫經文書)에 기록된 원효의 〈별기〉를 일본에 가져간 심상이 신라에 유학한 시기(720~730년대 추정) 사이로 봤다.최 교수는 "〈소〉가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의 〈기〉라는 이름을 일부러 〈별기〉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기신론)기〉라는 책의 이름을 〈(기신론)별기〉로 바꾼 것은 〈소〉에서 언급된 '별기' 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며 "본래의 〈기〉를 새롭게 편집한 후 그 이름을 〈소〉에서 세 차례 거론되고 있는 〈별기〉로 바꿨을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기〉로 재편집된 배경으로 법장 사상의 영향을 제시한 뒤 "학인들 사이에서 원효와 법장의 〈기신론〉 이해가 중시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양자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생겨났고, 그것이 〈소〉의 출현 이후 사람들의 주목에서 사라졌던 〈기〉에 법장의 사상과 부합되는 내용을 추가해 재편집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내시 부인은 왜 불상을 조성했을까

동불연, 27일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상 학술대회

2012년 〈미술사학연구〉 제274호에는 눈여겨 볼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선일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이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물 등을 조사 · 연구한 결과, 해당 불상이 죽은 내시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 부인이 시주해 만든 조선 후기 불상이라는 주장을 했다.

발원문에는 한 씨라는 여인이 남편 승록대부 나업에게 "극락에 가서 환생해 함께 아미타불을 뵙자"는 보내는 서원이 담겨있다. 또한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초안 스님임이 밝혀졌다.

내시 부인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연구한 결과를 한 자리서 만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단일 불상을 놓고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는 오는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내시와 불멸의 사랑을 서원해 화현한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속초 보광사와 목조지장보살좌상(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석문 스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발견 복장 전적 연구(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복장 직물에 관한 고찰(송미경 · 배순화 서울여대 교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의 재질 및 연륜연대 분석(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발원자 연구(권순삼 은평향토사학회 연구위원) 등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이병욱 강사, 원효학술상 우수상 수상

교수 수상자 無…학생 부문 김태수 · 정헌 스님



제8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이병욱 고려대 강사(비전임 부문 우수상 · 사진)와 김태수 서울대 박사과정(학생 부문 은상),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정헌 스님(학생 부문 동상)이 각각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5월 12일 심사위를 열고 제8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는 교수 부문 수상자가 없었다.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불교사상에 내포된 사회사상을 조명한 저서 〈불교사회사상의 이해〉로 비전임 교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술상 운영위는 "불교사상 속에서 사회사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양의 이론이나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한 점이 돋보인다"며 "이는 불교사상 속에 내재된 사회사상적 요소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학생 부문에서는 김태수 서울대 박사과정이 영어 논문 '용수 사구 논리에 대한 로빈슨식 해석의 타당성 : 귀류논법과 헤겔 변증법의 대비를 중심으로' 를 통해 은상을,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정헌 스님이 논문 '염불선 연구 - 청화의 염불선을 중심으로' 로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효학술상 시상식은 5월 18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렸으며, 비전임 교수 부문 우수상 수상자에게 400만원, 학생 부문 은상 수상자에게 250만원, 동상 수상자에게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각각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수행 친철한 입문서 '나무아미타불' 번역·발간

日불교사독서회, 26일 고불식

일본 민예연구자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는 불교의 염불수행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이다. 그는 1951년 〈대법륜〉에 불교 입문서인 '나무아미타불' 연재를 시작해 1955년 이를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야나기 무네요시의 친절한 불교 입문서 〈나무아미타불〉이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10년 간 번역 끝에 발간됐다.

일본불교사독서회는 오는 5월 26일 오후 2시 목우선원에서 〈나무아미타불〉 번역 · 발간을 기념하는 고불식과 '한 · 일 정토사상의 비교'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정토종의 종지는 불교의 근본사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를 비롯해 박오수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박사과정의 '서원과 미' ,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렵던 한문 불서, 한글로 쉽게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종 간행

어렵게만 느껴진 고승들의 한문 불서를 한글본으로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범망경고적기〉, 〈석가여래행적송 ·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 〈법화영험전〉, 〈송계대선사문집 · 상월대사시집〉, 〈선문오종강요 · 환성시집〉 등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종' 을 간행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는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체 14권 총 324종에 달하는 문헌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지난 2010년부터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총 300권 발간을 목표로 역주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종을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신라의 고승 태현이 찬술한 〈범망경고적기〉는 〈범망경〉 주석서로, 이는 법장의 주석서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묵 무기가 저술한



〈석가여래행적송〉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불교 전래사를 2권으로 기록한 저술이며, 함께 묶은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은 〈석가여래행적송〉 가운데 출가수행자들이 경책으로 삼아야 할 다섯 부분을 발췌해 서술한 것이다.

또한, 요원이 저술한 〈법화영험전〉에는 중국의 동진(東晋) 때부터 당(唐) · 송(宋)대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로부터 고려까지를 포함한 총 118가지 영험담이 수록돼 있다. 〈법화영험전〉은 각 이야기의 중심인물과 시대, 장소 등을 밝히고 있어 단순한 설화를 넘어 생생함이 느껴진다.

〈송계대선사문집〉은 자연을 좋아하고, 산사에서 소요 자재하는 삶을 살았던 송계대사가 머물렀을 사찰의 아미타불, 석가불, 약사여래상, 사천왕상을 표제로 한 일련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상월대사시집〉에는 조선 후기 승려들과 그들의 삶, 당시 불교계의 사정 등을 고찰할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으며, 조선시대 고승이 북두를 숭배한 최초의 사료상의 등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환성 지안(1664~1729)이 짓고, 그 제자 함월 해원(1691~1770)이 편찬한 〈선문오종강요〉는 육조 혜능의 법계를 이은 다섯 종파, 즉 임제종 · 운문종 · 조동종 · 위앙종 · 법안종의 핵심 내용(綱要)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환성시집〉은 〈선문오종강요〉를 저술한 환성 지안의 시문집이다. 시 144편과 제자 함월 해원이 쓴 '환성 화상 행장' 으로 구성돼 있다. 환성의 시는 소박하면서도 정감어린 시어(詩語)들은 어린아이의 동요 같은 느낌을 주고, 때로는 정 많은 노인의 넋두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이번 도서 간행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원융종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2일 학술대회 개최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진호)의 종단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원융종은 오는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원융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 을 주제로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창종 40주년을 맞는 원융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포교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은 논문 발표들이 이뤄진다.

원융종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 조심스레 내딛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수행 ·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